

2019년 12월 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지표 부진과 무역분쟁 우려로 하락 콘웨이 백악관 고문 “미-중 1 단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미 증시 변화요인: 무역분쟁 확대, 부진한 경제지표, 높은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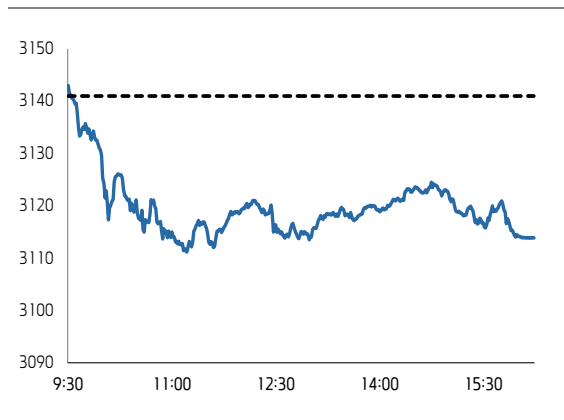
미 증시는 트럼프가 남미 국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즉각적 관세 부과 재개를 선언하자 하락. 더불어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도 하락 요인. 특히 높은 밸류에이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악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등 투자심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점이 특징. 다만, 콘웨이 백악관 고문이 낙관적인 미-중 무역협상을 언급한 이후 하락폭을 한때 축소하기도 했음(다우 -0.96%, 나스닥 -1.12%, S&P500 -0.86%, 러셀 2000 -1.04%)

미 증시는 ①무역분쟁 확대 ②부진한 경제지표 ③일부 기업들의 투자의견 하향 조정 등으로 하락. 특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악재성 재료에 민감한 반응. 트럼프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자국 통화에 대해 평가절하를 주도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복원한다고 발표. 브라질은 이에 대해 “보복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미국과 대화를 할 것” 이라고 언급해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을 완화.

한편,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가 전월(48.3)은 물론 예상(49.4)를 하회한 48.1 로 발표하며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특히 신규주문(49.1→47.2), 고용지수(47.7→46.6), 재고지수(48.9→45.5) 등 세부항목도 부진. 이런 가운데 건설지출 또한 전월 대비 0.8% 감소해 예상(mom +0.5%) 하회. 특히 비거주 건설지출이 전월(mom -1.0%)에 이어 전월 대비 1.2% 감소해 이를 주도. 이는 시장참여자들을 안심 시켰던 최근 경제지표와 대조적인 모습.

여기에 올해 한때 570%나 급등하며 가장 뜨거웠던 스트리밍 회사인 로쿠(-15.15%)에 대해 모건스탠리가 예상보다 실적 개선 속도가 느릴 수 있는데 그동안 과도한 프리미엄이 적용되어 있다며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점도 부담. 최근 일부 기업들에 대해 높은 밸류에이션(S&P500 12m Fwd PER 17.6 배, 5y 평균 16.6 배, 10y 평균 14.9 배)을 이유로 투자의견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은 투자심리 위축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2,091.92	+0.19	홍콩항셱		26,444.72	+0.37
KOSDAQ		634.50	+0.24	영국		7,285.94	-0.82
DOW		27,783.04	-0.96	독일		12,964.68	-2.05
NASDAQ		8,567.99	-1.12	프랑스		5,786.74	-2.01
S&P 500		3,113.87	-0.86	스페인		9,156.30	-2.09
상하이종합		2,875.81	+0.13	그리스		892.97	-0.95
일본		23,529.50	+1.01	이탈리아		22,728.59	-2.2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철강업종 강세

스트리밍 회사인 로쿠(-15.15%)에 대해 모건스탠리가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 둔화 우려를 기반으로 올해 상승은 과도하다며 투자이견과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급락했다. 넷플릭스(-1.48%), 디즈니(-0.63%), 아마존(-1.07%), 애플(-1.16%), 콤케스트(-1.18%) 등 스트리밍과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 하락했다. 한편, 사이버먼데이 온라인 매출이 94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되었으나, 이는 예상치인 95억달러를 소폭 하회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 아마존과 베스트바이(-1.79%)등도 하락 했다.

마이크론(-2.36%), NVIDIA(-3.46%) 등 반도체 관련주는 물론 L브랜드(-5.12%), 갭(-2.53%) 등 의류 업체등은 월러 로스 미 상무장관이 15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하락했다. 반면, US스틸(+4.19%), AK스틸(+4.71%) 등 철강업체는 트럼프의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활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엑손모빌(+0.43%), 코노코필립스(+0.72%)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JP모건(-0.22%), BOA(+0.33%) 등 금융주는 국제금리 상승에 힘입어 제한적인 등락에 그쳤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05%	대형 가치주 ETF(IVE)	-0.72%
에너지섹터 ETF(OIH)	+0.43%	중형 가치주 ETF(IWS)	-0.72%
소매업체 ETF(XRT)	-1.07%	소형 가치주 ETF(IWN)	-0.81%
금융섹터 ETF(XLF)	-0.63%	대형 성장주 ETF(VUG)	-1.22%
기술섹터 ETF(XLK)	-1.43%	중형 성장주 ETF(IWP)	-1.1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54%	소형 성장주 ETF(IWO)	-1.16%
인터넷업체 ETF(FDN)	-1.73%	배당주 ETF(DVY)	-0.53%
리츠업체 ETF(XLRE)	-1.8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9%
주택건설업체 ETF(XHB)	-1.3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4%
바이오섹터 ETF(IBB)	-1.00%	미국 국채 ETF(IEF)	-0.36%
헬스케어 ETF(XLV)	-0.44%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43%	물가연동채 ETF(TIP)	-0.14%
반도체 ETF(SMH)	-1.30%	Long/short ETF(BTAL)	+0.3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1.49	+0.03%	-1.52%	-1.34%
소재	371.70	-0.94%	-0.06%	+0.45%
산업재	677.64	-1.61%	-1.32%	+0.25%
경기소비재	953.48	-0.76%	+0.99%	-0.28%
필수소비재	635.73	+0.26%	+1.24%	+1.34%
헬스케어	1,143.63	-0.44%	+0.68%	+4.21%
금융	495.74	-0.65%	+0.05%	+2.69%
IT	1,521.44	-1.40%	+0.31%	+2.45%
커뮤니케이션	176.69	-0.87%	-0.13%	+1.99%
유틸리티	315.90	-0.77%	-0.81%	-2.85%
부동산	234.26	-1.75%	-0.40%	-3.4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하락폭 축소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3% MSCI 신흥 지수 ETF 는 0.02%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390 계약 순매수 했으나 1.45pt 하락한 276.4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4.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트럼프발 무역분쟁 확대 및 제조업 지표 등 일부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장중 콘웨이 백악관 고문이 “연말까지 중국과 1 단계 거래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자 하락폭이 축소되기도 했었다. 한편,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12 월 15 일까지 합의가 없다면 트럼프는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트럼프가 중국이 거래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던 점을 감안 낙관적인 무역협상은 이어갔다. 이는 한국 증시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최근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MSCI 신흥지수 리밸런싱 관련 물량과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과도한 상승이 부담으로 이어지며 관련 기업들 위주로 매물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화웨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 발표로 인한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중국 정부의 미국 군인의 홍콩 방문 불허 발표하는 등 불안한 홍콩,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도 매물 출회 요인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콘웨이 백악관 고문의 발언으로 인한 무역협상 불확실성 일부 완화 및 국제유가 상승은 이러한 외국인 매물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비록 부진한 미국 경제지표로 인해 하락 출발이 예상되나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수 부진

11 월 미국 ISM 제조업 PMI 는 전월(48.3)이나 예상(49.4)를 하회한 48.1 로 발표되었다. GDP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71%에 이를 정도로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 경기 둔화 우려를 높였다. 세부항목을 보면 한국 수출과 관계가 깊은 신규주문(49.1→47.2)은 물론 고용지수(47.7→46.6), 재고지수(48.9→45.5)가 부진한 반면 생산지수(46.2→49.1)은 개선되었다. 한편, ISM 은 컴퓨터 및 전자제품은 성장했으나, 운송장비, 기계 등은 위축되었다고 발표했다.

10 월 미국 건설지출은 전월(mom -0.3%)은 물론 예상(mom +0.5%)을 하회한 전월 대비 0.8% 감소로 발표되었다. 특히 기업투자과 관련이 깊은 비거주지출이 전월(mom -1.0%)에 이어 2 개월 연속 부진한 전월 대비 1.2% 감소로 발표되었다.

애틀란타 연은은 GDPNow 를 통해 4 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지난 11 월 27 일 발표한 1.7% 증가에서 1.3% 증가로 하향 조정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반등 성공

국제유가는 전일 이라크 총리의 사임 발표 등으로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특히 OPEC 정례회동을 앞두고 이라크 석유장관이 현행 하루 120 만 배럴 감소보다 40 만 배럴 증가한 하루 160 만 배럴로 추가적인 감산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지난 주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추가감산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주장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달러화는 부진한 경제지표 여파로 여타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제조업 PMI 가 양호한 결과를 내놓자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했다. 파운드화는 12 일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의 승리가 유력시 되나 노동당과의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로 강세폭은 제한적이었다. 엔화는 미국 지표 부진과 트럼프의 무역분쟁 확대 발표 여파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부진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상승 했다. 특히 연준이 2.0%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소식이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비록 미국 제조업은 둔화되었으나, 유럽과 중국 제조업 지표 개선은 국채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는 금리 상승을 제한했고 특히 단기물의 경우는 하락 전환한 모습을 보였다.

금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업지표 개선 영향을 받아 소폭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7%, 철근은 0.61%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5.96	+1.43	-3.13	Dollar Index	97.854	-0.43	-0.48
브렌트유	60.92	+0.71	-2.71	EUR/USD	1.108	+0.56	+0.60
금	1,469.20	-0.24	-0.09	USD/JPY	108.98	-0.47	+0.05
은	16.966	-0.82	-1.06	GBP/USD	1.2944	+0.15	+0.34
알루미늄	1,790.00	+1.13	+3.11	USD/CHF	0.9914	-0.88	-0.51
전기동	5,883.00	+0.32	+0.26	AUD/USD	0.682	+0.84	+0.60
아연	2,243.00	-1.34	-1.67	USD/CAD	1.3302	+0.15	+0.02
옥수수	382.00	+0.20	+0.92	USD/BRL	4.2169	-0.48	-0.24
밀	535.25	-1.20	+3.18	USD/CNH	7.0428	+0.17	+0.16
대두	870.50	-0.71	-2.95	USD/KRW	1183.10	+0.16	+0.60
커피	122.00	+2.48	+5.49	USD/KRW NDF1M	1184.95	+0.36	+0.98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821	+4.48	+6.55	스페인	0.486	+7.30	+7.70
한국	1.700	+6.50	-2.50	포르투갈	0.457	+6.10	+8.20
일본	-0.045	+2.80	+3.20	그리스	1.498	+7.00	+14.50
독일	-0.281	+7.90	+6.80	이탈리아	1.348	+11.90	+18.70